

흥도동

독거노인 명절 지원 사업 ‘니편 내편 송편’

글 정용자 사진 흥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는 다른 때보다 이르게 추석이 시작됐다.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말처럼 풍성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 같아 설렌다. 그러나 명절이 다가오면 외로움을 더 느끼시는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있다.

흥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4인 1조로 조를 구성,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14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하는 ‘니편 내편 송편’ 행사를 진행했다. 10가정은 명절 선물과 안부 인사를 전했고, 4가정은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어 먹었다.

명절 선물을 들고 찾아간 한 가정의 어르신은 손을 잡아주시며 “찾아와줘서 고맙다. 명절 기분이 난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다. 함께 송편, 만두 등을 만들며 나누어 먹었던 A 어르신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명절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동에서 이렇게 찾아와주니 너무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다.

준비한 것보다 더 큰 감사 인사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특히나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더욱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같다. 흥도동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고 지역 내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협의체 위원이 될 것을 다짐해본다.



풍산동

자치분권 시대, 주민이 열어간다!

글 조은정 사진 풍산동 주민자치회



자치분권! 특례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하기만 하다. 주민에게 권한을 주고 본인이 사는 곳의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에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려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 27일, 제1기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풍산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재 60명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다. 자치분권의 중요성, 참여의 필요성, 고양특례시 실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풍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번 교육과정이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오는 10월 12일에는 제4회 공감마루 주민토론회가 개최된다. 마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통해 키운 역량이 그대로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발전적인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풍산동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해마다 이어지며 주민 스스로 자치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식사동



제1회 식사동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토토가’



글 박명순 사진 식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제2기 2019년 식사동 청소년자치위원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식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청소년자치위원회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과 밴드, 카톡, 문자, 전화 등으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청소년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청소년자치위원들은 여름 내내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개최하는 만큼 부족함을 느꼈지만, 의견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8월 24일에 개최된 제1회 식사동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족이랑)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목표로 한 환경운동과 체험마당, 음악마당, 영화마당을 구성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이 함께 힐링하는 모두의 축제를 만들었다. 식사동 청소년자치위원들은 정말 멋졌고, 후원해 주신 식사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했다. 이번 식사동 청소년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화목한 식사동을 다시 한번 느꼈다.

행신2동



행신2동의 꽃할배할매들 이야기

글 윤찬수 사진 행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분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외로운 이웃 어르신들을 모셔 직접 지은 집밥을 대접해드리고 함께 수다를 떠는 일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 추석에는 송편, 설날에는 떡국, 생신에는 미역국 등 명절이나 기념일에 맞는 음식과 혼자서는 해 드시기 어려운 반찬들로 차려진 밥상을 준비해놓는다. 거동이 비교적 괜찮으신 분들은 모셔서 함께 식사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도시락으로 드린다. 몇 년째 봐어도 한결같은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꽃할배할매라 부르게 된 우리 행신2동 어르신들께 식사

대화동



비가와도 재미있는 재밋길 프리마켓으로 오세요!



글 황정원 사진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화동에서 ‘재밋길 프리마켓’이 열렸다.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후원으로 대화동 백병원과 킨텍스 사이 주택가 장촌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재미공작소 앞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열린다. 학습 동아리를 통해 솜씨를 갈고닦은 셀러들의 작품 전시, 판매 및 공연이 함께하는 축제이며 마을 공방 작가들과 수공예작가, 지역 셀러와 농부의 로컬 푸드가 함께하는 마켓이다. 핸드메이드 옷, 수제 먹거리 등 풍성한 볼거리와 살거리가 가득하고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보통 프리마켓은 비가 오면 취소되는데 재밋길에서는 즐거운 추억이 된다. 떨어지는 빗소리에 맞춰 화관을 쓴 우쿨렐레 동아리 ‘유케하니’의 연주가 시작되니 대화동이 바로 하와이가 되는 마술이! 재밋길 프리마켓은 환경을 생각하는 NO 비닐마켓으로 장바구니와 텀블러를 지참해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만든 재밋길 장바구니도 판매한다. 다음 프리마켓은 11월 7일 목요일에 진행된다. 비가와도 진행되니 꼭 들러서 재미있는 추억을 쌓길 바란다.

외에도 뭔가 즐거움을 드릴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주민자치 아들딸들이 준비한 올가을 특별 메뉴는 추억 만들어 드리기! 평소 할배할매들의 말씀을 듣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모아 교육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겠냐고 물어보니 너무나 좋아하셨다. 10시에 시작인데 9시부터 모여서서는 수업 시작 전부터 질문을 쏟아내시어 답변해 드리기 바빴을 정도다. 발그레 상기된 표정으로 깔깔거리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다음에는 또 어떤 추억을 만들어 드리면 좋을까?’라는 즐거운 고민을 한다.

